

+ 이동준 · N SOUND 엔지니어

EUPHONIX ARTIST SERIES

MC CONTROL, MC MIX

리얼악기가 가상악기보다 좋은 이유?
만질 수 있어서다!



최근 터치스크린 방식을 적용한 핸드폰의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터치스크린 시장 성장률도 연평균 5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해가 갈수록 이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덕분인지 컨트롤 서페이스 시장에도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제품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일찍이 유포닉스사의 빅/미드 사이즈 콘솔 형태의 제품이라든가 매카사의 DXB와 같은 제품에 터치스크린이 적용되었다.

소형 사이즈로는 유포닉스사의 MC Pro 제품이 있기는 했으나 상위 모델이라 할 수 있는 5-MC의 모듈 형태 제품이었고 마켓 대상을 중대형 스튜디오로 잡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때문에 소형 프로젝트 스튜디오나 개인 사용자가 선택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다. 이처럼 소형 사이즈의 컨트롤 서페이스 제품에서 터치스크린이 적용된 제품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유포닉스에서 비로소 이러한 유저층의 갈증을 해소해줄 Artist 시리즈라는 별도의 제품 라인을 구성하여 MC Control과 MC Mix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였다.



MC Mix **MC Control**

MC Control brings the unparalleled speed, resolution and DAW integration of Euphonix's high-end pro consoles to the personal studio in a revolutionary ergonomic, slim-line design. MC Control fits perfectly between keyboard and screen, and can be connected to additional MC Mix units to create a larger mixing control sur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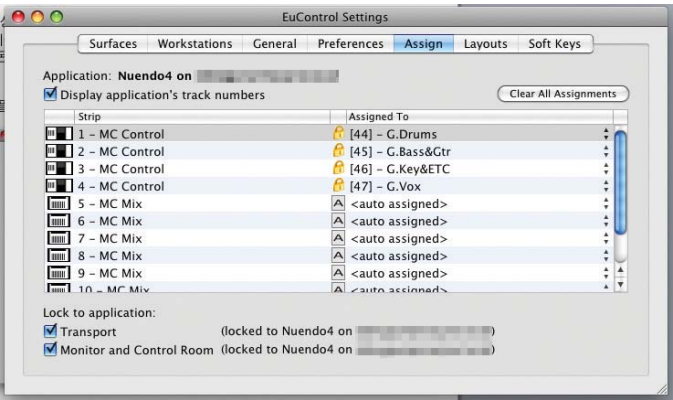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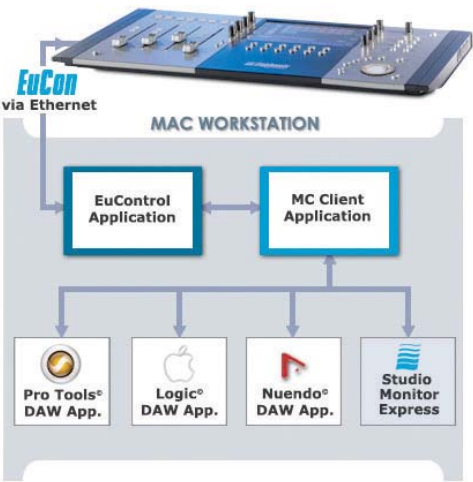
EuCon High Speed Connectivity – Any Application

EuCon 프로토콜은 유포닉스에서 정한 규격으로 이더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역폭이 넓고 전송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여 복수의 머신과 연결하기도 수월할 뿐 아니라 EuCon을 지원하는 워크스테이션/어플리케이션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어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고 있다. 즉, 단일 컴퓨터 내에서 구동되는 EuCon/MCU/HUI 지원 소프트웨어들을 하나의 컨트롤러로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 네트워크에 묶여있는 원거리 컴퓨터 내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들 또한 컨트롤 할 수가 있다.

EuCon/MCU/HUI를 지원하지 않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조차도 MC Control의 소프트키로 제어할 수 있는데 맥용 탐색기인 파인더, 사파리, 아이튠즈와 같은 비음악 저작 툴들에 대한 프리셋들도 제공되고 있어 키보드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MC Control을 통하여 컴퓨터를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은 MC Control의 소프트키가 가상 컴퓨터 키보드로써 작동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프리셋이 제공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EuControl 소프트웨어의 Soft Keys 항목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MC Control과 MC Mix는 활성화된 창을 기준으로 제어가 되며, 창 전환을 위한 Application 버튼을 제공하고 있다. 즉, 컨트롤러의 제어 대상이 활성화 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것으로 이는 MIDI에 기반 한 타사 제품들이 DAW 내에서 설정된 미디포트를 통해 연결된 컨트롤러로만 직접적으로 제어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컨트롤러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트랜스포트와 모니터 컨트롤 룸의 경우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고정하는 옵션이 있어 어느 정도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페이더나 노브에 의한 컨트롤은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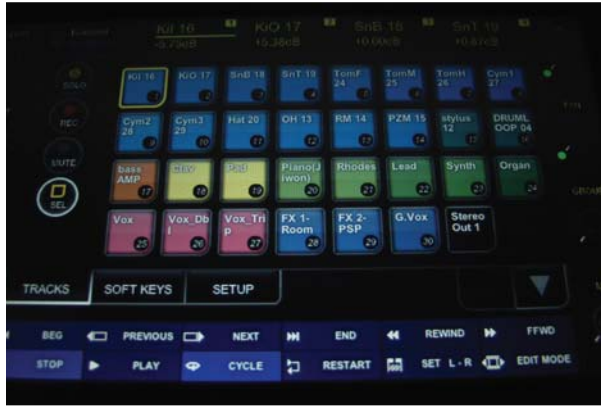
사양 비교

	MC Control	MC Mix	M 사	T 사
페 이 더	채널	4채널	9채널	25채널
	길이	100mm	100mm	100mm
	해상도	10bit(1024단계)	10bit(1024단계)	10bit(1024단계)
	비고	APLS사 제품, 터치센시티브	APLS사 제품, 터치센시티브	Optical Penny+ Giles, 터치센시티브
노브	9채널, 터치센시티브, 푸쉬 버튼	8채널, 터치센시티브, 푸쉬 버튼	8채널, 푸쉬 버튼	24채널
컨트롤 버튼	터치스크린, 설정 가능한 소프트키 12개	트랜스포트(검용)	50여개	20여개
표시 장치	800×480 LCD	OLED 128×64 8채널	55문자×2열	소프트 LCD 프로그램 제공
프로토콜	EuCon	EuCon	MCU	MCU 호환, 기타
연결 방식	이더넷	이더넷	미디	미디(USB 방식)

MC Control, MC Mix 비교

MC Control은 MC Mix와 비교해 채널 스트립 컨트롤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이 강한 반면 MC Mix는 여러 트랙을 동시에 컨트롤하기 수월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활용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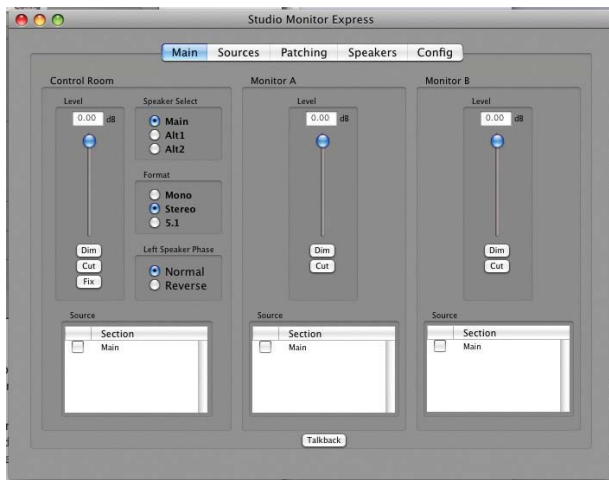
MC Control은 FLIP 버튼이 존재하지 않아 노브와 페이더 간 전환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며 노브 셀렉트 키가 별도로 있지 않고 Shift키 버튼과 조합하여 터치스크린에



있는 가상 버튼을 눌러주어야 하는 상대적으로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말해 MC Control이 갖지 못하는 MC Mix만의 특징이 되어 서로 보완되는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두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할 경우 최대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되어 있다.

MC Control 터치스크린 & 소프트키

MC Control은 DAW의 각 기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을 터치스크린과 임의 설정 가능한 12개의 물리적인 형태의 소프트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 제품들 중에서 단연 최고의 접근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TRACKS 모드에서는 DAW 상의 각 트랙의 이름과 색상까지 동기화하여 보여주는데 한 번에 8x4 배열 즉, 32개 트랙을 표시하여 MC Control에서 제공하는 4개의 페이더만으로도 큰 무리 없이 조작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좌측 4개의 원형 버튼은 각 트랙 버튼들을 누를 때 적용되는 기능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SOLO, REC, MUTE, SEL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상단에는 MC Control에 제공되는 페이더 수에 대응하는 4개의 채널 정보 표시

창이 있으며 좌측 상단에는 현재 MC Control이 제어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과 워크스테이션(PC) 이름을 표시한다. 그리고 화면 양쪽에는 각각의 물리적인 터치센시티브 노브에 대응되는 정보를 보여준다.

DOET KEYS 모드에서는 한 화면에 6x4 배열 즉 24개의 가상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DAW의 각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평선키 역할을 한다. 또한 뱅크를 지원해 보다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스크린 상에 보여 지는 가상 소프트키 이외에도 스크린 하단에 물리적인 소프트키가 12개 제공되고 있다.

SETUP 모드에서는 컨트롤 룸과 모니터에 관련된 설정이 가능한데 EuControl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인 Studio Monitor Express를 제어하거나 혹은 이러한 기능을 포함하는 뉴엔도의 컨트롤 룸 믹서를 제어할 수 있다.

MC Control의 LCD 화면에 표시되는 폰트는 특이하게도 제어되는 PC에 설정된 폰트를 읽어오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따라서 표시되는 폰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 때문인지 한글과 같은 2Byte 문자도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다른 문화권의 문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맥스시스템의 경우 폰트를 출력할 때 기본적으로 안티앨라이징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MC Control의 LCD 화면에는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맥의 환경설정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MAC OS와 폰트 처리가 달라서 인지 보다 가독성이 좋았다. 참고로 현재 유포닉스 아티스트 시리즈는 공식적으로 맥만 지원하지만 EuCon Workstation이 설치된 윈도우즈 시스템의 경우 EuCon 프로토콜에 의해 제어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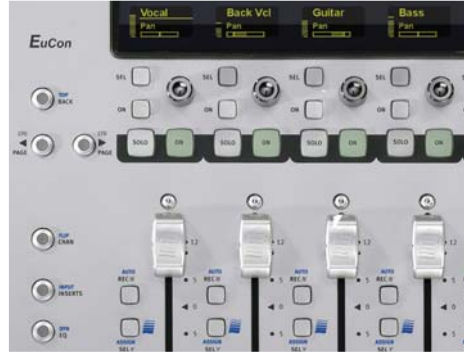
MC Control은 터치스크린에서 접근 가능한 소프트키 외에도 6×2 배열 즉 12개의 물리적인 소프트키가 스크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 좌측에는 페이지 전환키가 있어 12개 이상의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기능은 터치스크린 하단에 표시된다.

이 물리적인 소프트키는 감촉이 느껴지므로 보다 빠르고 직감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스크린에 표시되는 가상 버튼보다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준다. 또한 TRACKS 모드 때에도 평선키로써 접근이 가능하므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MC Mix 채널 스트립 모드

MC Mix는 CHAN 모드를 통해 선택된 채널의 8개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다. 이 모드는 플러그인과 같이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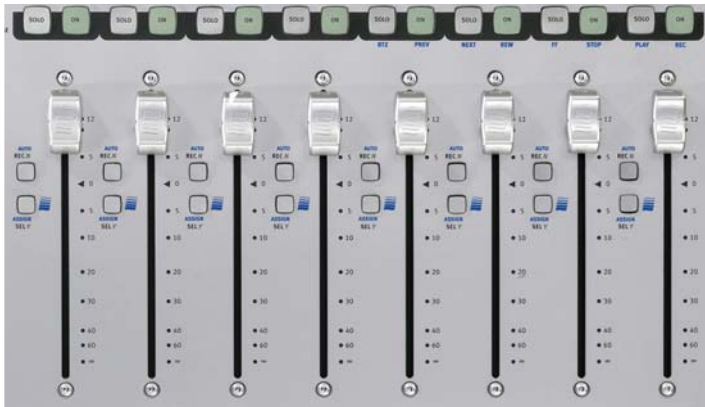
Normal 모드에서는 각각의 채널마다 하나의 파라미터만을 표시하는데 PAN과 같이 여러 트랙을 동시에 조절할 때 유용하다. MC Control은 이와 같은 Normal 모드가 없어 여러 트랙을 동시에 조절할 때는 약간의 불편함이 따른다. 이밖에도 MC Mix는 FLIP 모드와 노브 SEL 버튼이 있어 다수의 트랙을 동시에 컨트롤 할 때 MC Control과 비교해 유리하다.



페이더

MC Control은 MC Mix에 사용된 페이더는 ALPS사 제품으로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제품들과는 터치 반응과 속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아주 미세한 터치도 민감하게 감지해 내는 능력을 보여주며 부도체의 물체로 페이더를 건드릴 경우 페이더가 고정되어 원래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M사 제품의 경우에는 DAW상 페이더는 움직였지만 자체 페이더는 잠시 후 원래의 위치로 돌아 왔으며 T사 제품은 이러한 반응조차도 일어나지 않아 MC Control, MC Mix처럼 터치 센시티브 페이더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MC Control과 MC Mix는 펌웨어 버전에 따른 차이는 있었으나 모터라이즈 페이더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동하려는 곳까지 일정한 속도로 신속히 이동하여 스프링처럼 반동되는 느낌이다. 반면, M사와 T사 제품은 목표점에 다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MC Control과 MC Mix는 독특하게도 Mute 버튼이 없었는데 On이라는 버튼이 이 역할을 하였으며 타사 제품과는 반대로 이 버튼을 비활성화함으로써 Mute 버튼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REC 버튼과 SEL 버튼은 페이더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간격이 그리 넓지 않아 실수로 페이더를 미세하게 건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 버튼들은 하단의 좌우측에 있는 Shift 버튼과 연계하여 각각 오토메이션/여사인 버튼의 역할을 하며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터치페이더를 건드리면 0dB로 리셋 된다.



노브

MC Control과 MC Mix의 노브는 페이더와 마찬가지로 터치센시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다. MC Mix의 경우 노브를 터치하는 동안 OLED 창에 파라미터 값을 표시한다.

MC Control도 마찬가지로 터치센시티브 노브이지만 그런 특징을 살린 기능은 보이지 않는데 차후 펌웨어 업데이트나 이를 활용한 DAW 소프트웨어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 또한, 노브는 푸쉬 버튼으로도 작동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초기 값으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며 Config 모드에서는 DAW의 인서트/센드(Aux) 등의 각 슬롯의 플러그인/버스 설정과 On/Off, 플러그인 창 띄우기 등을 마우스 없이도 바로 컨트롤 할 수 있다.

MC Control은 스크린 상에서 보여 지는 그래픽 노브가 Knob SEL/ON 버튼 역할을 하며 MC Mix는 별도의 물리적인 버튼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노브 컨트롤러의 활용은 타사 제품과는 다르게 훨씬 직관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트랜스포트 & 조그휠

MC Mix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트랜스포트 기능은 Shift 버튼과 채널 SOLO/ON 버튼을 조합하여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조그휠의 느낌은 약간은 가벼운 느낌이며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이 아닌 한 단계씩 이동하는 방식이다. MC Control은 타사 제품과는 달리 조그/셔틀은 물론 중/휠 중 인/아웃과 페이드 인/아웃, Nudge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의 변경은 기본 소프트웨어 설정 값으로는 터치스크린 아래쪽에 위치한 12개의 물리적인 소프트웨어에서 설정 가능하다.

그동안 소형 컨트롤 서페이스에서 표준 규격처럼 사용되던 M사 제품의 경우 프로툴이나 누엔도와 같이 상당히 많은 수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기에는 평션키나 기능에서 부족함을 느껴 보다 개선된 컨트롤 서페이스의 출시를 기다렸던 유저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M사 제품의 후속 기종에 실망한 유저도 적지 않을 것이다.

16000불 가량 하는 MC Pro의 기능을 고스란히 담은 MC Control과 MC Mix는 그런 목말라 해왔던 유저들에게 최적의 대안이 될 듯 하다.